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5. 23.(월) 14:30 (2022. 5. 24.(화) 조간)	배포 일시	2022. 5. 23.(월) 09:00
담당 부서	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	책임자	팀 장 윤미란 (044-202-4671)
		담당자	사무관 장동수 (044-202-4642)

국민이 정한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이름 「다누리」

- ‘달’과 ‘누리’가 합쳐진 이름으로, 달을 남김없이 누리고 오라는 의미 -

- 「달 탐사선 명칭공모전」 선정 명칭 5개 시상(총 상금 600만원)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의 새로운 이름으로 “다누리”를 선정하고, 5월 23일(월)에 “달 탐사선 명칭공모전 시상식”을 개최하였다.

< “다누리” 의미 >

순 우리말인 ‘달’과 누리다의 ‘누리’가 더해진 이름으로,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이길 기원하는 의미

- 이번 명칭공모전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.
-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명칭공모에는 총 62,719건이 접수 되어, ‘18년 ‘누리호’ 명칭공모전 응모건수(10,287건) 대비 6배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다.
 -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에 더불어(1차·2차 심사, 확대 전문가평가), 1,000명의 국민들이 국민선호도조사를 통해 참여하였다.

□ 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된 “다누리”는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시작을 알리는 달 탐사선의 공식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.

- 다누리를 제안한 대상 수상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하태현 씨이다.
- 그는 공모전 당선 소감으로 “탄소중립과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연구하고 있지만 늘 우주에 대한 흥미를 느껴와 우리나라 달 탐사선 이름 짓는 일에 참여했다.”며 “생각지 못하게 명칭으로 선정돼 기쁘고, 이번 달 탐사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이번 시상식은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, 항우연 이상률 원장, 공모전 수상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, 항우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.

- 대상 수상자인 하태현 씨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, 향후 미국에서 진행하는 다누리 달 탐사선 발사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.
- 또한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 4명에게는 항우연 원장상과 상금(우수상 100만원, 장려상 50만원)이 수여되었다.

□ 현재 다누리 달 탐사선은 올해 8월 발사를 위해 마지막 우주환경 시험을 완료하고,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다.

- 발사 후에는 미 항공우주국(NASA)와 협력하에 지구에서 달로 약 4.5개월간의 항행을 하여, '22.12월에 달 상공 100km 위의 원 궤도로 진입할 계획이다.
- 이후 다누리 달 탐사선은 달 궤도상에서 1년간('23.1월~'23.12월) 6개의 탑재체*로 달 관측 및 과학기술 임무**를 수행할 예정이다.

* 카메라, 측정기, 센서 등의 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의미하며, 다누리 달 탐사선에는 고해상도카메라, 자기장측정기 등 6개의 탑재체가 실려있음

** 달 착륙 후보지 탐색, 달 과학연구(자기장, 방사선 관측 등),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

- 이날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“역사적인 달 탐사선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”며,
- “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달 탐사선이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,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1. 「다누리」 달 탐사선 임무 개요

유관기관	한국항공우주연구원	책임자	실 장	노형일 (042-860-2206)
------	------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



< 다누리 달 탐사선 개요 >

우리나라 최초의 '달 탐사선'인 다누리 달 탐사선은 우주탐사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여, 발사 및 달 궤도 전이('22.8월~'22.12월) 후 1년간('23.1월~'23.12월) 과학임무*를 수행할 예정입니다

* (국내개발 탑재체 5종) 달 표면 촬영, 우주인터넷 검증 등 / (NASA 탑재체 1종) 달 극지방 촬영

□ 형상/제원

○ 본체

형상	주요내용	
	총 중 량	678kg
	크 기	2.14× 1.82× 2.19(m)
	임무기간	1년 ('23.1월~'23.12월)
	운용궤도	원형궤도 (100km × 100km)
	전이궤도	BLT* (Ballistic Lunar Transfer)

* 탄도형 달 전이방식으로,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지만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(발사 후 달까지 약 4.5개월 소요)

○ 임무 탑재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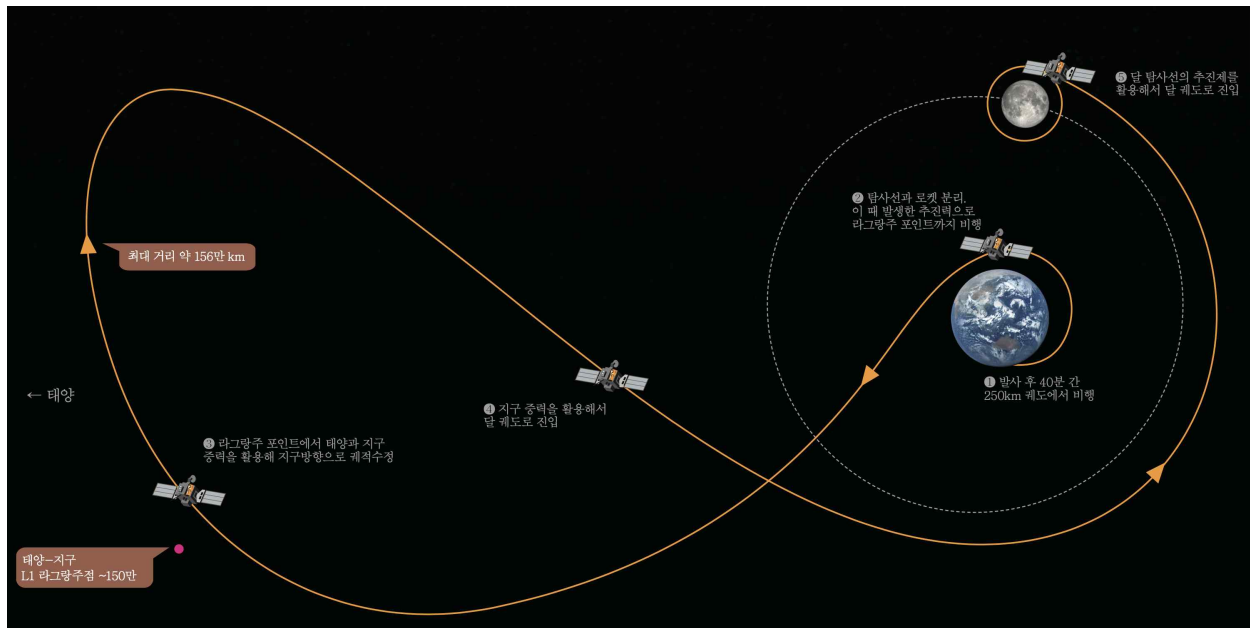


□ 발사[‘22.8.3.]

- (발사일시) 발사장 현지 '22.8.2일(화) 19:37(한국기준 '22.8.3. 8:37)
- (발사장소)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
- (발사체) Space-X Falcon 9-5500

☐ 지구-달 궤도 전이('22.8월~'22.12월)

- 발사 후 미 항공우주국과 협력 하에 BLT^{*}(Ballistic Lunar Transfer)궤적을 따라 달 탐사선 항행 및 통신 관제를 통해 달 궤도 진입 예정('22.8~'22.12)
- * 탄도형 달 전이방식으로,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지만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(발사 후 달까지 약 4.5개월 소요)



[발사체로부터 분리 이후 달 탐사선 전이궤적 및 달 궤도 진입과정]

☐ **임무운영('23.1월~'23.12월)**

- (운용궤도) 달 상공 100km에서 달 극지방을 지나는 원 궤도
 - (궤도진입 후 시운전 운영) '23.1월
 - 달 궤도 진입 후, 탑재체 초기동작 점검 및 본체 기능 시험 진행
 - 광학탑재체(LUTI, SHC, PolCam) 검보정* 수행
- * 최상의 위성영상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영상의 오차, 왜곡 현상을 조정하는 작업

○ (정상운영) '23.2월~'23.12월

- 달 상공 100km의 임무 궤도를 하루 12회 공전하며 달 관측 및 과학기술 임무*수행 및 안테나를 통해 관측 데이터 수신
 - * 달 착륙 후보지 탐색, 달 과학연구(자기장, 방사선 관측 등),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
- 달 탐사선의 안정적인 궤도 유지를 위한 거리 측정 및 궤도 기동을 수행하고, 태양 입사각 변화에 따른 열 조건 유지를 위한 회전 기동 수행